

우리나라 항로지 변천사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Ocean Passage Pilot

임영태* · 최윤수**

Young Tae Lim · Yoon Soo Choi

요약 항로지(航路誌; Ocean Passage Pilot)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수로서지중 하나로서 항로지는 선박이 항해하거나 정박할 경우에 필요한 주요항로의 장애물, 항로표지, 조류, 해양기상 및 항만시설 등을 수록한 수로서지로, 동해안·남해안·서해안·중국연안·말라카해협·근해·대양 항로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 근해의 수로에 관한 정보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61년 영국 수로국이 간행한 China Pilot 제Ⅲ판이고 시초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해군 수로국은 明治16년(1883년) 영국 수로국이 간행한 China Pilot 제Ⅲ에 근거하여 남중국해 연안에서 우리나라 근해를 거쳐 러시아의 아무르와 오츠크해에 이르는 해역에 대하여 환영 수로지(寰瀛水路誌) 제1판을 발행하였고, 3년후 제2판을 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간행한 것은 1952년 1월 해군수로국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6.25전쟁도중 해군의 상륙 작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해상보안청이 간행한 조선연안수로지를 번역하고 내무부 건설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서지 제1호로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 동안, 남안편과 제2권 서안 서해 제도편을 간행하였다.

현재의 항로지는 처음에는 수로지(水路誌; Sailing Directions)라는 명칭으로 간행하였으나 1998년 현재의 명칭인 항로지로 개칭하여 간행하여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항로지가 처음 간행되기 시작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로지에 대하여 연대 별로 고찰하여보고 현재 간행된 영국, 일본, 중국의 항로지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키워드 수로지, 항로지, 영국수로지, China Pilot 제Ⅲ판

Abstract Ocean passage pilot (航路誌; ocean passage pilot)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as one of the Nautical Publications issued by the ocean passage pilot was required for lying at anchor or when sailing ship. The main obstacle course, Right, Tidal current, sea and port facility, Nautical Publications, which includes the East Sea coast, the south coast and the West Coast, China's coast, the Malacca Strait, offshore and the ocean. Ocean passage pilot and so on.

China Pilot III, published by the British Hydrographic Authority in 1861, was the first to introduce Korean coast. Meanwhile, the Japanese navy number of countries 明治 (1883) 16 years the English Channel, published china pilot my abode III on the basis of the South China Sea waters off the coast of our country Russia. Welcomed raceway pond about the area about the Amur and ocheukeu (寰瀛水路誌) Edition 1 issue, and after three years and published by the second edition.

Naval Hydrographic Bureau headquarters in January 1952, was first published in the nation surogwan. to support the Navy's amphibious operation,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Coast of the Chosun, published building canals to translate and the Home Office the cooperation of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surge by No. 1 in offshore sailing directions for the first volume, The second textbook covers the West Bank and the southern shore side West Sea. A publication on the system.

The current port was first published under the title of "Hydrographic Directions", but in 1998, it was renamed as the current name Ocean passage pilot.

In this study, we intend to review the history of Korea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and to compare it with the ones published in Britain, Japan, and China.

Key words Sailing Directions, Ocean Passage Pilot, China Pilot Third Edition

1. 서론

항로지(航路誌 ; Ocean Passage Pilot)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항해용 간행물을 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선박안전법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꼭 필요한 서지이다.

항로지(航路誌)가 처음 간행 되었을 때는 수로지(水路誌 ; Sailing Directions)라는 명칭으로 발간하여오다가 명칭이 일제의 간제란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기로 하고 여러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연안항로지(남해안), 연안항로지(서해안)란 명칭으로 발간하였으며 1998년부터 동해안항로지(제10판), 남해안항로지(제11판), 서해안항로지(제12판)로 정식 명칭을 부여하고 개정판을 간행하고 있다(국립해양조사원 50년사, 2009, 341쪽).

항로지는 그동안 책자의 형식으로 간행하여왔으나 전자해도의 출현에 따라 전자서지의 개발이 필요하여 2002년부터 CD에 수록하여 전자서지라는 명칭으로 간행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 전자화된 형태로 제작 국제수로기구 (IH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표준포맷으로 DB화하여 CD-ROM으로 간행 할 예정이며, 전자해도표시시스템 (ECDIS) 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2. 항로지 변천사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로지 간행 기록에 대하여 CHINA PILOT 제Ⅲ판(Fig. 1)(서울대학교 도서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로지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항로지가 처음 간행된 것은 1861년 영국 수로국이 간행한 CHINA PILOT 제Ⅲ판이다. 영국해군 수로국은 1855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의 수로지 제1판을 발행하고 3년마다 개정판을 간행하였는데 1855년 발행된 제1판은 Hongkong에서 Shanghai에 이르는 해역을 다루었고 우리나라 해역이 나타나게 된 것은 1861년 발행된 제3판부터이며, 1864년의 제4판이 CHINA PILOT의 완결판에 해당한다.

당시 조선 연안에 관한 자료는, 일본 해군 수로부가 CHINA PILOT 제Ⅲ판을 기본으로 하여,明治19년(1886년)간행한 환영수로지 제2판(Fig. 2)이다.

간행에 관한 근거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소화27년(1952년)(Fig. 3)간행한 조선남동안수로지의 연혁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본 수로부는 처음에는 환영수로지 제2권 제2판으

로 간행하였다가 명치27년 환영수로지를 분리하여 명칭을 조선수로지로 바꾸어 조선 전연안에 대한 자료를 간행하였다. 명치44년에는 조선수로지를 일본수로지와 합하여 간행한다. 이후 대정9년 조선의 동안과 남안을 분리하여 조선수로지로 재차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처음 간행한 것은 1952년 1월 해군 수로국 수로관실에서 6. 25전쟁중 해군의 상륙작전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일본해상보안청이 간행한 조선연안수로지를 번역하고 내무부 건설국, 상공부 수산시험장, 국립관상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4개월여에 걸쳐 실지조사와 실측을 하여, 서지 제1호로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 동안, 남안 편 과 제2권 서안 서해 제도편을 간행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연안을 동, 남, 서해로 나누어 3권의 체제로 간행하였고 수로지에서 항로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1 CHINA PILOT 제Ⅲ판

CHINA PILOT은 영국 수로국이 중국연안부터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타타르 해협에 이르기 까지 항로를 탐사하고 간행한 수로지로서, 1855년 CHINA PILOT 제 I 판을 간행하고 이후 3년마다 개정판을 간행하여 1864년 제4판이 간행되었다.

제 I 판은 Hongkong에서 Shanghai에 이르는 해역만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것이 상세히 설명되기 시작한 것은 1861년 발행된 CHINA PILOT 제Ⅲ판(Fig. 1)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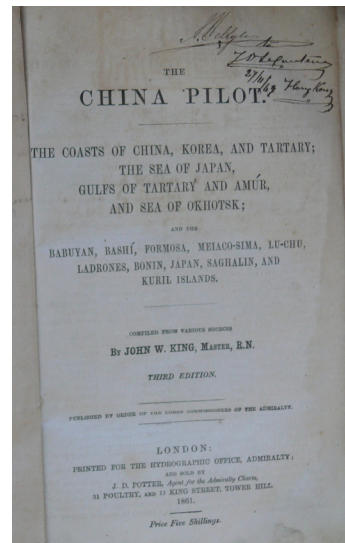


Figure 1.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1861, China Pilot Third Edition

CHINA PILOT 제Ⅲ판의 수록 범위는 중국연안, 대한민국, 일본해, 타타르만, 아무르와 오희츠크해에 이르는 상당히 길고 넓은 해역에 대한 수로지이다.

1860년까지 조사하고 측량한 자료를 모아 간행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해의 해양 관련 자료는 Chapter VII 250쪽부터 265쪽 사이에 기술되어 있다. 남해 조도 부근에 관한 기사를 보면 조석과 식수, 보급, 주민들의 일반적인 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현재의 저문도는 Port Hamilton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조석에 대한 것과 식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주민은 친절하다고 기술되어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자료로 보관중이며, 책자가 너무 낡아서 대출이나 복사는 불가능하나,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카메라로 촬영, 파일로 보관이 가능하여 현재의 자료는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이다.

2.2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

일본 해군수로부는 明治16년(1883년, 고종20년) 영국 수로국이 간행한 CHINA PILOT 제Ⅲ판을 근거로 하여 중국연안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 타타르 해역까지 5,900여리에 걸쳐 항로를 측량하고 연안의 자료를 정비하여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 제1판을 간행하고 3년후 제2판(Fig. 2)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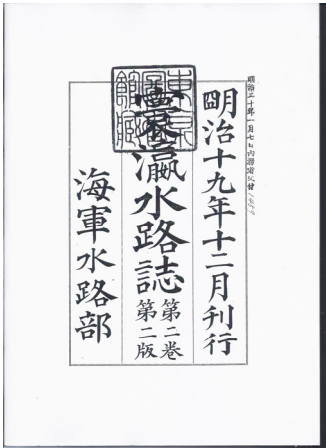


Figure 2. Japanes Navy., meiji19. Sailing Directions Second Edition(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복사본)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는 천자가 다스리는 바다의 수로지라는 뜻으로 동양의 넓은 바다를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조선 연안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것은 3년후 간행한 제2판부터이다.

조선에 대하여 수록된 내용을 보면, 제1편 총기에는

조선국 일반정세, 흑룡연해주 일반정세, 조선 서안과 남안의 바람과 천후, 캄차카 동안의 기후 등을 서술하였으며, 제2편에는 조선 서안 압록강에서 서해연안을 따라 소중관도, 흑산도인근 해역을, 제3편은 조선 남안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부산항까지, 제4편에는 조선 동안과 리양쿠르도, 울릉도를 거쳐 두만강까지이며 제5편은 흑룡 연해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대동강하구는 명치15년 측량자료, 강화도 한강에서 양화진은 명치17년 조사하였고, 1886년 프랑스함대의 자료도 참고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남양만은 명치10년(1878년)조사를 하였으니 대략 8~9년간 조사 측량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 제2판은 현재 부산시립도서관에 역사자료로 보관중이며 대출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 참조한 자료는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자료를 복사한 것이다.

2.3 조선수로지

명치27년 환영수로지에서 제1편부터 4편까지 조선 연안에 관한 자료를 분리하여 처음으로 조선수로지(Fig. 3)라는 명칭으로 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조한 자료는 일본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명치40년에 제2판으로 개판 발행한 수로지이다.

제2판은 제1판 간행 후 약8년 간 조사, 습득한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간행한 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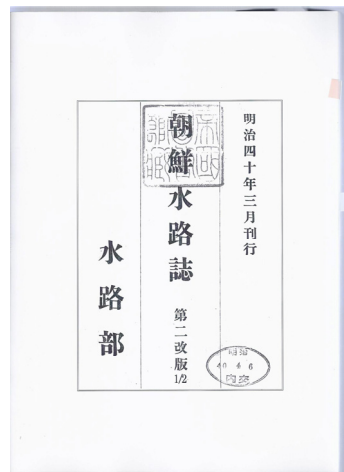


Figure 3. Japanes Navy., maiji40. Chosun Sailing Directions Second Edition(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복사본)

조선수로지 제2판은 판매가격 정가 1원53전으로 일본해군 수로부가 발행하였고 판매소는 일본우선주식

회사이다. 전체 총59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현재의 항로지체제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제1편 총기에는 형세, 인구, 기후, 바람과 해류 등에 관한 기사이며, 제2편은 조선서안 북부 한강에서 부터 압록강 대동구 까지 제3편은 조선서안 남부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물포 이남에서 조선 서안 최서단 사장포까지이며 오마로해가 표기가 되어있다.

제4편은 조선 남안 제주도에서 부산항까지이며, 제5편에는 독도와 울릉도, 조선 동안으로 수명만에서 두만강까지의 정세를 상세하게 표기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죽도(Liancourt rocks)으로 병기하고 상세히 표기하였다.

조선 전 연안에 대하여, 지세, 보급, 인구 등 앞서 간행된 서지와는 다르게 상세하게 서술되어있다.

2.4 일본수로지 제10권 상, 하.

대정9년 간행된 일본수로지 제10권(Fig. 4)은 상권과 하권 2권으로 간행되었으며, 상권은 총기와 조선 동안에서 남안까지, 하권은 조선서안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일본수로지 제10권은 일본수로지 제6권의 바뀐 이름으로 조선 전 연안의 측량을 마치고 기사와 자료를 증대하여 조선 동안에서 남안까지 자료를 일본연안수로지 제10권 상, 하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흥미 있는 자료는 현재 부산 영도대교앞 롯데백화점 자리에 용미산(상권 191쪽)이라는 지명이 쓰여 있다.

이 자리는 과거 부산시청 청사로 한동안 이용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동양척식회사 부산지점 자리로 용두산공원이 용의 머리 부분이라면 용의 꼬리부분에 해당하는 위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Figure 4. Japanes Navy., Daisho 9, Japan Sailing Directions(국립중앙도서관)

Fig. 5는 일본수로지 제10권 상편에 수록된 조선 동해안의 주요항구를 나타낸 지도이다.



Figure 5. Japanes Navy., Daisho 9. Sailing Directions Chart of Chosun. 2p

2.5 간이수로지

소화20년 간행된 조선연안 간이수로지(Fig. 6로서 제1권)은 조선 동안에서 남안까지, 제2권은 조선 서안의 자료가 수록되었다.

제목이 일본수로지에서 조선연안수로지로 바뀌었으며 목차와 내용은 조선 연안을 상세하게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간이수로지라는 표제를 보면 본편을 간행하기 전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복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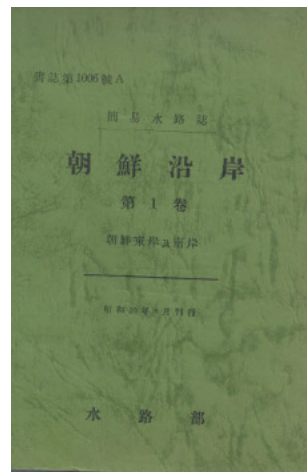


Figure 6. Japanes Navy., Showa 20, Chosun Cosal Sailing Directions

2.6 조선남동안수로지

조선남동안수로지(Fig. 7)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소화27년(1952년) 간행한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의 자료가 수록된 수로지이다.

소화20년 간행된 간이수로지의 내용과 목차가 같으며 수록내용과 목차 등은 1952년 해군 수로관실에서 최초로 간행한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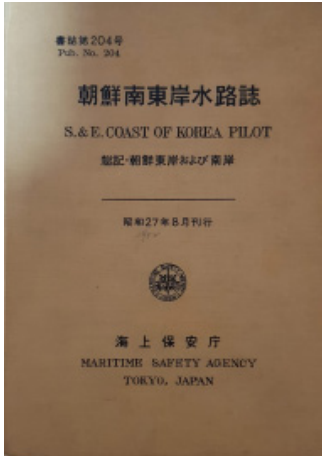


Figure 7.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Showa 27, S & E. Coast of Korea Pilot(KHOA)

관계수로지의 연혁(Fig. 8)은 조선 남동안 수로지(Fig. 7)의 목차 앞에 게재된 것으로 조선연안의 수로지가 명치19년 환영수로지 제2권으로 최초로 간행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소화 27년 조선남동안 수로지까지 조선수로지를 발간한 연대표로서 조선수로지의 간행 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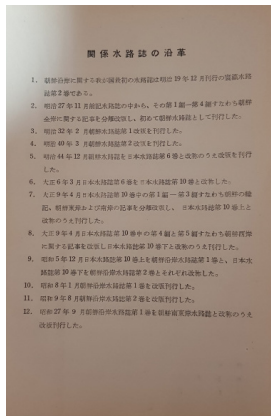


Figure 8.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Showa 27, Sailing Directions history. 2p(KHOA)

2.7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

한국연안수로지(Fig. 9)는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1952년 해군의 상륙작전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한국전쟁중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최초의 수로지이다.

일본의 수로지를 번역하고 내무부 건설국, 상공부 수산시험장, 국립관상대의 자료 협조와 실측한 자료를 포함하여, 내용과 형식은 해군의 상륙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안의 형태를 서술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일본수로지의 체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수로지 제1권은 제목 다음 부제로 동안, 남안으로 표기하였으며, 제2권은 서안, 서해제도로 표기하였다.



Figure 9. Naval Hydrographic Bureau headquarters., 1952, Sailing Direction for The East Coast of Korea(KHOA)

2.8 한국연안수로지(3권으로 체제를 분리 개편 간행)

그동안에는 한국연안수로지 동안, 남안편과 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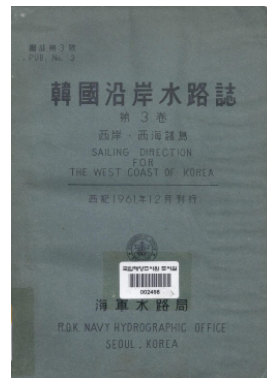


Figure 10. R.O.K. Naval Hydrographic Office, 1961. Sailing Direction for The West Coast of Korea(KHOA)

서해제도의 2권 체제로 발간하여오다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으로 분리하여 3권 체제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Fig. 10) 해군 수로국에서 제3권 서안, 서해제도편을 간행 하였고 1963년 10월 해군에서 교통부 수로국으로 민간 이양 후 대한민국 수로국으로 명칭을 바꾸어 1964년 (Fig. 11) 제1권 동해안, 동해제도편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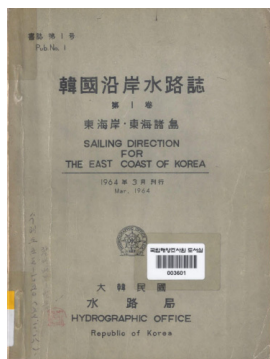


Figure 11. Hydrographic Office Republic of Korea, 1964. Sailing Direction for The East Coast of Korea(KHOA)

2.9 동해안 수로지

1964년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을 간행한 이후 1995년까지 한국연안 수로지 제3권 제9판이 간행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 50년사 431~439쪽)

1996년 한국연안수로지의 간행체제와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나, 서지의 제목을 동해안수로지, 남해안수로지, 서해안수로지로 이름을 바꾸어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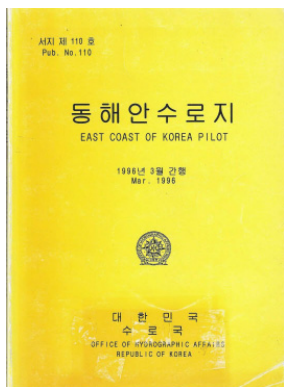


Figure 12. Hydrographic Office Republic of Korea, 1996. East Coast of Korea Pilot(KHOA)

2.1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199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고 수로국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98년 수로지를 항로지로 제목을 변경하고 표지의 디자인을 단색 위주의 서지에서 발행하는 해안의 특징을 살리는 표지로 바꾸었으며, 동해안 항로지에는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를 표지 디자인으로 채택하여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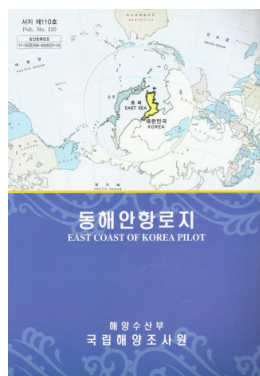


Figure 13. Korea Hydrographic. 1998. East Coast of Korea Pilot (KHOA)

2.11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08년 2월 또다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일부 해양수산부 기능이 건설교통부로 흡수되며 조직의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국립해양조사원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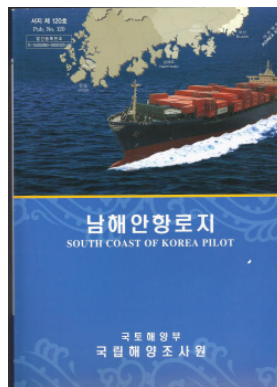


Figure 14. Korea Hydrographic Affairs, 2008. South Coast of Korea Pilot(KHOA)

2.12 조선반도연안수로지

조선반도연안수로지(Fig. 15)는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헤이세이13년 간행한 서지를 헤이세이21년 개정판으로 간행한 서지이다.

우리나라 전 연안을 조선반도남안, 동안, 서안으로 부제를 표기하고, 남안은 해남각에서 부산항, 동안은 부산항에서 두만강, 서안은 매물수도에서 압록강까지로 구분하여 주요항로와 선박의 침로법, 항만의 개요, 시설 등을 간략하게 표기하였으며, 암초(暗礁)와 암초(岩礁)를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해도 색인도와 사격훈련구역을 도면으로 첨부하였고, 울릉도는 소개하였으나 독도는 서술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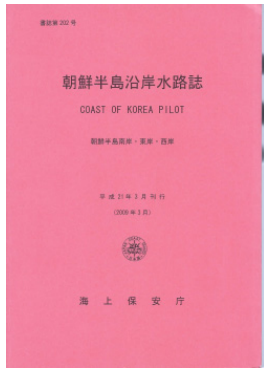


Figure 15.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2009. Coast of Korea Pilot)

2.13 규슈연안수로지

규슈연안 수로지(Fig. 16)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2010년 간행한 수로지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연안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수로지를 간행하고 있다.



Figure 16.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2010. Coast of Guzhou Sailing Directions

규슈연안수로지는 일본열도의 남쪽 규슈에서 오키나와까지 연안해역의 항로상황, 연안과 항만의 지형, 시설, 관련 법규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입출항 하는 선박의 침로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주요 항구의 전경을 사진으로 게재 하였으며 각항의 개요와 기상, 해상기상, 목표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14 중국항로지남

중국항로지남(Fig. 17)은 중국수로지로서 중화인민해방군 해군사령부 항해보증부에서 2011년 간행한 서지이다.

제1장 총기, 제2장 압록강입구에서 천진항, 제3장 청진항에서 성산각, 제4장 성산각에서 장강 하구 북각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발해만에서 장강 하구 까지 항해 자료이다. 황해의 1월, 4월 7월 10월의 해류도(21쪽~28쪽)를 첨부하였다.

대경도와 등대의 사진, 묘박지, 항만시설물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항만의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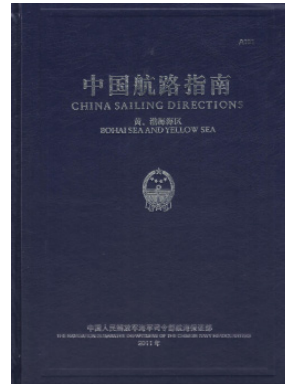


Figure 17. The Navigation Guarantee Department of The Chinese Navy Headquarters. 2011. China Sailing Directions)

2.15 영국수로지

영국 수로국이 간행한 수로지(Fig. 18)로서, 우리나라 제주도 연안에서 남해를 거쳐 동해 연안, 러시아 연안을 따라 시베리아 동해안, 캄차카반도 동쪽의 오흐츠크해에 이르는 항로에 대한 안내서 이다.

조류, 해수표면온도, 해빙의 분포, 등을 도면으로 나타내었으며, 위치와 일반정세, 목표물, 항로와, 주요 등대 사진, 해안의 갑, 단 사이의 거리 등 항해목표물에 대하여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산항, 여수항 등은 사진을 게재 하였으나 러시아 연안은 대경도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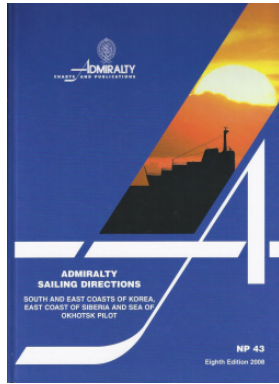


Figure 18. Admiralty Charts and Publications, 2010.
Admiralty Sailing Directions)

3. 항로지별 특성 분석

3.1 China Pilot Ⅲ판과 환영수로지.

China Pilot Ⅲ판의 우리나라에 관한 것은 부산항과 원산항 등의 조석과 기후, 지형, 보급, 위치와 거리에 대한 자료들이다. 항해술과 측량술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필수 자료라 생각한다. 환영수로지도 China Pilot Ⅲ판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경도와 같은 그림설명은 없으며 문자로 서술하였다

3.2 일본수로지

대경도가 삽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등대와 등부표의 설치, 수리, 점등, 소등, 등 주로 항로표지에 관한 항행통보 기사를 미농지에 인쇄하여 수로지의 해당란에 부쳐 놓았다.

육안에 의하여 항해를 하였으므로 수중에 어둡게 보이는 암초(暗礁)와 바위로 구성되어있는 암초(岩礁)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3.3 간이수로지와 조선남동안수로지

조선 해역을 서해안과 남,동 해안으로 분리 간행하고, 항, 포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현재 간행되고 있는 항로지의 체계를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3.4 한국연안수로지에서 현재

1952년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일본 수로지를 번역 간행한 이래 오늘날 까지 항로지의 체제와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4. 결론

수로지(水路誌 ; Sailing Directions)는 항해하는 선박에게는 해도 다음으로 중요한 서지이다.

우리나라의 항로지는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해역을 조사 측량하여 우리의 해역을 소개하였다. 일본 수로부는 우리나라 해역을 정밀 조사하여 조선연안수로지를 간행하였다.

1952년 해군본부 수로관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국연안수로지를 간행하였지만 이것도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간행한 조선연안수로지를 번역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간행 내용이나 간행체제 역시 일본 수로지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현재 간행하고 있는 항로지도 그 내용이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글 전용 정책으로 암초(暗礁)와 암초(岩礁)의 구분도 없어지고 심지어 그 내용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현대는 운항하는 선박의 크기나 운항시스템이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는 대형화 현대화 되어있다.

전자해도의 출현으로 바다에서도 자동차의 네비게이션과 같은 자동 항해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지만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에게는 보급 등 과 함께 주변 지역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외국의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고자 한다면 선박의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은 본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날씨나 조석, 보급품 등 사전에 입항지의 정보를 습득하여야 하는데 수로지보다 적절한 서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는 성능 좋은 자동번역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연동하여 항구 주변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위하여 해도에 표시할 수 없는 연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서지로 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첨단 항해장비를 갖추고 항해하는 선박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체제의 항로지의 개발 필요성과 함께 일본 수로지, 중국 수로지, 영국수로지를 소개하였다.

참고문헌

1. 일본 수로부, 1886. 환영수로지 제2판.
2. 일본 수로부, 1907. 조선수로지 제 2판.
3. 일본 수로부, 1920. 일본수로지 제10권 상.
4. 일본 수로부, 1945. 간이수로지. 조선연안 제1권.
5. 일본 수로부, 1952. 조선남동안수로지.

6. 해군본부 수로관실, 1952.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
7. 해군 수로국, 1961. 한국연안수로지 제3권.
8. 대한민국 수로국, 1964.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
9. 대한민국 수로국, 1996. 동해안수로지.
1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1998. 동해안항로지.
11.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08. 남해안항로지.
12. 일본 해상보안청, 2009. 조선반도 연안수로지.
13. 일본 해상보안청, 2010. 구주연안 연안수로지.
14. 중화인민해방군 해군사령부 항해보증부, 2011. 중국항로지남
15. 한국수로사, 1982. 수로국.
16. 국립해양조사원 50년사, 1999. 국립해양조사원.
17. 수로 60년사, 2009. 국립해양조사원.
18.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1861, China Pilot Third Edition.
19. Admiralty Charts and Publications, 2008. Admiralty Sailing Directions Eight Edition.
20. www.khoa.go.kr
21. ww.jha.or.jp
22. www.nl.go.kr
23. www.yahoo.co.jp

